

여대생들의 앞날에는 결코
분홍빛 미래가 놓여 있지 않음에도
그 대다수는 대학 1, 2학년 동안은
이런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고,
졸업할 무렵이 되면 이런 도피가
자포자기의 심리상태로 바뀌는 것을 본다.
막연한 꿈과 기대에서 자포자기의 상태로 가는 과정은
한 개인에게는 무척 고통스러운 길이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처음처럼
현실을 직시해 보라는 충고를 하고 싶다.
“눈앞의 공포를 직시하라.
그러면 그것은 사라져 버리기 마련이다.”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진실한 만남을 일궈 내겠습니다
열린 마음 또 하나의 공간

발행 : 김순미 옥영화 선거운동본부

편집 : 최미화

시경



다시 처음같은
마음으로...

제11대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김순미 옥영화 선거운동본부에서 드립니다.

나는 서 있다.
 사랑을 사라고 외치는 간판 아래
 사랑에 목마르라 사랑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더욱
 목마른 것이요 날마다 목마른 것이니 외치는
 저 텔레비전 B&B전도사 아래
 나는 서 있다
 사랑을 팔아서
 콘크리트 빌딩을 짓는 시대
 사람들의 가슴에
 구멍을 뚫어주고 돈을 받는 시대
 사람들의 머리에 안개를 뿌려주고 재벌이 되는 시대
 사람들의 두 눈에
 안대를 채워주고 돈을 받는 시대

나는 서 있다
 나를 부푼리는
 숨사탕처럼 바람 넣는 말들 사이
 나를 빨아먹으려는 혀들 사이
 흠어지려는 입술을 필사적으로 다물고
 떠오르려는 발을 땅에 비끄러매고

- 고정익의 「서 있는 여자」中 -

다시 처음같은 마음으로 진실한 만남을 일궈내겠습니다



• 열린 마음 또 하나의 공간
 제 11 대 총어학생회를 준비하는
 김순미 옥영화 선거운동본부에서 드립니다



부총여학생회장 후보 **옥영화**(화공 93)

과 연사부장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일천 시대여학우였습니다. 11대 총여학생회 건설을 고민하면서 일천 시대 여학우를 모두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힘이 나고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수의 남학우들이 있는 공대에서 저는 제가 여자라는 사실을 잊고, 남성화 되는 것을 오히려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성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긍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가지 공부들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시대 여학생들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길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또한 과내의 일꾼들이 여학생들이 내충적인 공급을 받고, 진짜 자신의 성과물을 얻기 위한, 총여학생회의 강화만이 여학일꾼들의 튼튼한 도약대가 될것입니다. 전농벌을 누비면서 시대 여학우들을 만나겠습니다. 내년도 총여는 총여학생회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농벌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총여학생회장 후보 **김순미**(전동 92)

92년 4월 총선. 내가 대학 들어와서 공정선거 강시단이란 이름으로 처음 겪었던 선거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부정선거를 직접 느껴있던 충격의 날. 어쩌면 이것이 그때까지의 허구적인 사회관을 뒤바꾸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제는 대학선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나려 합니다.

지난 여름 농활이 생각이 납니다.

여성농민반에서 아주머니들께 '이름 찾아주기'를 했었죠 소녀같이 부끄러워하면서 웃으시던 아주머니들. 이제는 우리시대여학우도 '여성'이라는 이름 찾기, 올바른 존재찾기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정반으로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길은 조금은 먼 여정이지만 우리 여학우들이 하나의 줄이 보이는 즐거운 여행일 것입니다.

저 스스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절실히 느끼면서 그 변화의 길에 시대여학우와 함께 하겠습니다.

“외유내강”하면 순미가 떠오른다던

추천 의 글

김 순미(전통 92)

순미와 나는 어찌보면 기구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같은 이름으로, 가장처음 통성명한 동기로,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같은 모임에 속해있는 친구로, 여하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왔고, 나름대로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나, 생각으로만 그치고만 부분에서 나는 가끔 순미에게서 내가 몰랐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곤 한다.

학교앞 김밥아줌마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든가, 돈이 바닥을 보여도 뭇사달라는 친구들을 거절못한 다든가, 무리해보이는 부탁이나 요구를 어찌보면 무력해 보일만큼 쉽게 수락하는 그런 ‘마음약한 여자’로서의 순미가 있는가 하면, 농활, 빈할때 앞장서는 씩씩한 모습이란든가 가루에서 나가서 보았던 당당한 모습이나 아무도 없는 빈 학생회살을 지키고 있는 굳결함 등에서 보여지는 강인한 면도 있다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순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도서관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나를 찾아와 자기자신의 총여학생회장으로 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조심스러운 회의를 비쳤을 때도 내가 할수있었던 것은 평소의 순미의 이런모습들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표현하는 것 뿐이었다.

과 동기중 대표적인 “뒷북”이며 때론 실없는 소리를 밀도 끝도 없이 늘어놓아서 사람들은 웃기기도 하지만 길고에서는 가장 많이 준비를 해와서 가장 많이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 그런 가볍고 무거움을 잘 구별하여 행동하는 모습들에 대한 인간적인 면에서의 평가만을 해줬을 뿐인데도 무척 기뻐하는 순미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 미안함을 느꼈다.

학생회사업이 특히 여학생회 일들이 어떤 지도자의 특출한 능력이나 실천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못지 않은 일하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면에서의 기반도 필요하다는 내 견해로 본다면 순미야말로 있어야할 적절한 자리를 찾았다고 말하고 싶다.

순미의 입후보 지지 글을 부탁받았을 때 굉장히 망설였었던 것도 어찌보면 순미의 이러한 인간적인 면에만 기인한 나의 관점때문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외유내강”하면 순미가 떠오른다던 한 동기 남학우말처럼, 평소 생활에서 보여줬던 강인함 속에서 너그러움만으로도 새롭게 시작될 순미의 내년 한해를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오래전 언젠가 순미에게 해줬던 나의 말로 이 글을 맺고 싶다.

“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도 잘해나갈 애야!”

영화가 열람수 있는 보금자리가 됐으면...

추천 의 글

이 은진(화공 93)

영화의 여학생회장 후보 출마는 예상했던 것이었기에 그리 놀라운 소식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은 영화의 고민들과 내년의 영화의 생활이 편안하지 못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 안타까웠다.

영화를 만나 이야기 하면서 내 걱정들이 영화의 열정과 신념에비해 너무 작다는 생각과, 영화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미안함을 가지면서도 차기 총여가 영화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과 여학우 모임을 준비하고 꾸려가면서 우리는 과내 여학우의 고민과 고충, 생활에서의 여학우들의 위상, 내가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많은 힘을 서로 받았다. 영화의 여성운동에 대한 해박함과 열정속에서, 영화 자신이 여성이라는 자각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연사일을 했던 사람다운 강인함과 활동성도 영화만의 재산 이라고 생각한다.

남아있는 일은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마하게 되어 학과일에 소홀하게 된 것, 과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한다는 아쉬움, 11월 말까지 수업을 제대로 못들어 가는 게 제일 걱정이라고 하는 영화가 차기 총여를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메꾸고 채우며 시대총여의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과 더불어 영화 개인적인 삶의 전환기로서 발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출마를 하면서 영화의 개인적인 변화도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가지게 된다. 영화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땀길 걸음이 자의든 타의든 고쳐지고 못 여학우처럼 걸을 수 있게 됐으면..... 하는 것들. 이 글로 영화를 알리기엔 너무도 부족한 듯하다. 시대 여학우가 직접 만나서 영화의 가능성과 추진력을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능력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과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스스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영화의 결의가 빛을 발할 수 있었음 좋겠다.

목 차

권두시	
결의의 말	
추천의글	
총여학생회 짜임새는	1

열린 마음

남이 알려주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지켜나간다	2
보는 문화+하는 문화 → 삶의 문제	6
표정이 있는 우리만의 공간	8
알아두면 좋아요	11
쉬어가는 페이지	12
취업비상 → 일천의 힘으로 바늘 구멍이라도 내야합니다	13
여성을 위한 여성주의	16
기활을 다녀와서	18
세민속흔	21

포하나의 공간

여학생모임 탐방	23
여학생회를 바라보며	25
한 여학우가 드리는 글	26
그저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인데	28
M이 물고온 낙테파문	30

총여학생회 짜임새는?

■ 총여학생회장, 부총여학생회장

■ 총무기획부 : 예산문제와 총여사업 전반에 관한 기획을 맡는다. 그리고 집행부를 챙겨주는 엄마.

■ 사회진출부 : 취업에 관한 정보를 유통하거나 졸업선배님과의 간담회 학원에서의 취업대책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취업담당 주체 사회 단체와의 연대도 고민

■ 익술1부장 : 여학생회 강화 주체
여일꾼 모임을 고민하고 과에 대한 실사로 구체적 도
움을 고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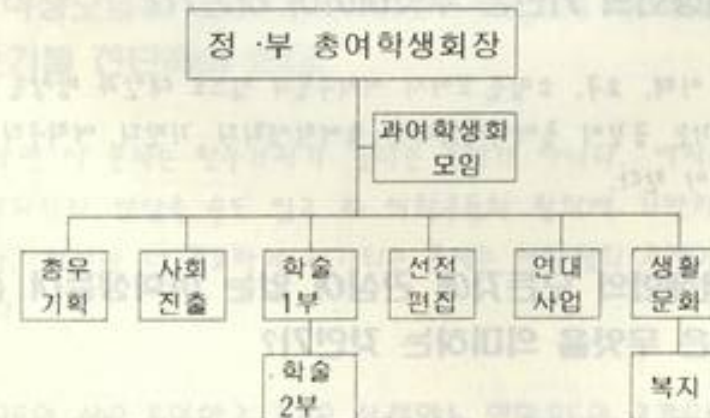
■ 익술2부장 : 성문제 담당 주체
여성학교 학교주변 물갈이 사업등을 주도적으로 고민
한다.

일상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고민과 공개토론회 주체

■ 선전편집부 : 선전 일반, 지속적인 화장실 선전, 햇살지, 소식지

■ 연대사업부 : 기지촌 활동을 위한 교양학교, 기지촌 활동고민
여성농민반에 대한 고민과 연대활동

■ 생일문화부 : 다양해진 여학우들의 문화적요구를 수렴하고 영화 상영 뿐
아니라 다양한 놀이 문화를 개발하는 주체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해야합니다!!

해마다 선거때면 기증강화라든지, 기반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금껏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은 공유되었음에도 가장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모두들 총여학생회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83년 또는 84년 여학생회가 건설된 이후로 거의 해마다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총여학생회만이 담아내야 하는 것이 존재하며 그것은 여학우들의 자주적 삶으로 고양을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

올해 총여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했음에도 많은 여학우들에게 잘 모르겠다 또는 관심이 없어서의 이야기를 들었다. 총여학생회가 많은 대중사업을 펼쳐내고 올해 신선한 시도를 보인것이 사실이지만 냉정히 평가해보건데 여학우들의 지향을 모아나가는 성과는 없었다고 본다. 이것을 굳이 왜 말하려 하는가? 학생회나 단대나 총여학생회가 사업만을 하는 기획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의 문제의식을 두서없이 나열해보자

총여학생회의 기반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여학우들의 이해, 요구, 소망을 모아서 여학우들의 힘으로 대안과 방향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공간이 총여학생회라면 총여학생회의 기반의 여학우의 한사람 한사람이어야 한다.

총여학생회의 모든것에 관심이 없는 여학생들이 존재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 여학우들의 존재에 기반한, 여학우들의 목소리가 담긴 여회가 아니었다.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학내 여학우들의 지향을 모아나가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학우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일천 여학우들의 힘을 믿지 않아서는 안된다.

여학생모임을 일구어내려는 노력들이 과마다 존재한다.

\ 이런과는 주체가 어느정도 보이기 때문에 매개고리없이도 직접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여학생부로서 학생회의 체계에 속해 있는과의 움직임

\ 「회」로의 발전을 이루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과 마다의 선목형태의 역년별모임이 생각이상으로 많다.

\ 그러나 형태나 상황이 다양하다. 어쨌든 자주적으로 형성된 모임을 활성화해내는 것,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게 제기되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우선 모임에 대한 조사작업이 필요하며 모임장의 지위보장속에서 내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야 한다.

여학생모임을 활성화시키자고 하기전에 왜 있는과도 없어지는가를 진단해야 한다.

\ 어찌보면 이 문제는 한두가지가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 여학생회의 정형이 세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과 여학우들의 합의에 기반하지 못해서도 그렇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여학생회 주체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여학우들의 삶을 투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여학우들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여학생 모임의 활성화, 단대의 여러 역할 강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는 생각에 모아진다.

그럼 어떻게 여학생 모임의 활성화라든지, 단대의 여러 역할 강화를
이루어 낼 것인가?

- ▶ 가장 먼저 정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3~4년 정도의 시간을 가
지고 보았을 때 95년은 일꾼역신의 해로 삼고자 한다. 익기초 많은
열의를 가지고 여학생모임을 일구어내려다가도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 지, 또 누구를 해야 할 지를 몰라 결국 니기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선 단체들이 단련되고 단체들에게 도움주는 통로가 거의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 ▶ 익술 1부장이 여학생회 강회의 주체로서 과 어부장의 만남과 연석회의,
익대 어모임장 외의를 고민한다.

- ▶ 과 어부장의 지위를 익보

전학대회

===정·부 총여학생회장만
의결권을 가진

단학대회===전무

내년도 총회 때 여학생회장
이나 여학생의 대표로 인정되
는 사람에게 의결권을 주는
것을 제안해야 한다. 올해 많
이 제기 되었지만 아직 복잡
한 여러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올해 6개 요구안중에 여
학우들의 취업에 대한 특별한
요구망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
처럼 어쩌면 우리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전달되더라도 그것
이 다수의 남학우들에 의해서
결정나버리는 모순이 있는 한



여학생회 일꾼학교.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학원문제에서 여학우들의 목소리는 보장될수 없다. 여학우들의 지위
확보 많은 논의속에서 내년도는 반드시 제기하고 의견을 모아야한다.

- ▶ 단체를 든든이 세워내면서 여외를 굳건히 하자

여학생회 일꾼학교

- ▶ 여성문제 연구동아리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은 예전에 비해 많이 고양되어 왔으나 담아낼
그릇이 없다. 과내에서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과는 그속에서 발전을
지원해야 하지만 없는 과들의 여학우들의 요구를 어느정도 담아낼수
가 있다.

※ 주체주의 문제

: 첫째이기 때문에 총여학생회 집행부중 여학생회 강화 주체인
익술 1부장이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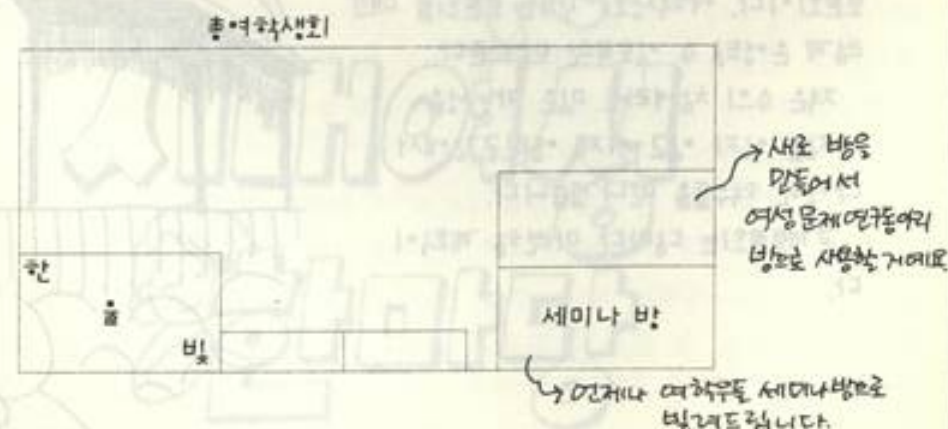
※ 만드는 과, 장이 있어서 문제

: 새로 만들어지는 동아리가 동아리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1년의 활
동, 20여명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대산하나 여회산하
의 동아리는 마음맞는 사람만 있으면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다.

※ 오스나 문제

: 공대 == 새알소리, 심심풀이에 학기당 15만원을 지원해준여성
문제 연구동아리 == 10~20만원 사이로 책정

※ 공근 문제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다양한 생활문화적 요구

--- '보는 문화'와 '하는 문화'의 조화로 삶의 윤희를---

영화보기, 음악감상, 연극 등등 문화적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다양해 졌다. 올해 많은 영화를 상영하게 된 것하며 시대여성 한마당때 여러가지 생활체육을 만들어낸 것도 어찌보면 학우들의 문화적 요구를 담아내려는 의도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제는 보는 것 뿐 아니라 직접 참여해보고자 하는 요구도 많다.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려는 신세대의 특징때문인가. 여학생들의 모습이 해마다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들 한다. 사실이다. 고등학교때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해 본 사람들도 있고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해온 경우도 많다. 그만큼 활동적이고 무엇을 시켜도 빼거나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

여학우 그리고 남학우들까지 참여할 공간을 남겨두는 여러가지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자연스런 고민이 시작되었다. 단지 보고 즐겨워하는 것뿐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 만들어 갈수 있도록 충분한 여백을 주어야 한다.

열린 마음 포아나의 공간

▶ 공개토론회

한가지 주제를 미리 제시하면 학우들이 고민해 온 내용을 주로하는 학우들 중심의 토론회이다. 여학생회 간부는 토론회를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만 도와 준다.

적은 수의 참여라도 많은 가능성을 가짐을 잊지 않고 이제 열린공간에서 다양한 학우들을 만나겠습니다.

공개토론회는 달마다 마련할 계획이다.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 시대여성 문학상제정

여성문제에 관한 한 장르의 제한없이 글을 쓸수 있다. 실제 사상의 주변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문제의식을 느끼더라도 체념적으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시립대 학우들이 느끼는 성문화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학우들의 의식의 흐름을 파악할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수 있다.

\ 9월달에 공고하여 10월 시대여성한마당때 시상한다.

\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낸 글을 햇살지의 주된 내용으로 한다.

▶ 영화상영

실제 준비과정의 어려움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마련할 수도 있으나 한올빛의 영화상영이 한달에 한번씩 있기때문에 이를 적극 선전해주고 대동제나 시대여성한마당, 여성학교의 기회를 통해서 기획 영화 상영을 할 예정이다.

▶ 시대여성 한마당

한해의 성과를 모아 여학우들의 화합의 장으로.

\ 과 여학생회, 여학생모임, 여학생부,여성문제 연구동아리를 소개하고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것을 발표하는 자리

\ 올해 시도된 여학생이 부담없이 함께할 수 있는 종목을 계승함으로써 대동의 장을 만들겠습니다.(예:제기차기, 줄넘기, 통나무 자르기, 팔씨름...)



시대여성
한마당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표정이 있는 우리만의 공간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누구나 원하는 생활일 것이다. 내가 생활하는 공간은 더 편리했으면 하는 이기주의적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편안함만을 추구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의 충족감을 채우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모습은 하나도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때보다도 낡은 것이 못 될 것이다.

복지공간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의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과 동시에 그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기능적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여학생 휴게실,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먼저 여학생휴게실이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학생휴게실이 따로 만들어진 이유는 여학생들의 생활속에서 어떠한 보람을 당보에 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하에 만들어진 공간이 여학우들이 모여서 쉬고 피곤할 때 잠 자는 공간일뿐 아니라 서로 필요한 정보들을 교환하기도 하고, 요즘의 사회모습 -- 무슨 사고가 났으며 가장 크게 취급되는 정치문제는 무엇인지... --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하고, 또 요즘 무슨과에서는 이런 일이 있더라. 저번에 총여에서 한 공개토론회는 진짜 함께 할만 하더라. 등등의 학내상황에의 관심가는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여학우들에게서 '그 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너무 조용해 말 한마디 하기가 이상하다' '책을 읽고 싶은데 마땅히 읽을 책도 없다. 예전에는 만화책이라도 있었는데...'라는 말을 듣는다. 물론 이러한 말을 듣게 되는 원인은 휴게실내에서의 소음문제(옆에 있는 공부방에 떠드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와 책을 관리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접어두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휴게실은 여학우들 스스로가 주인이다. 하면 치울 수 있고 함께 읽고 싶은 책이있으면 가져다 놓을 수도 있고 또 분위기가 영 썰렁하다고 생각되면 꽃도 꽃아 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총여가 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여학생 휴게실 *** 이제 기능적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 학생회관 휴게실

• 이야기 하는 곳

• 신문스크랩

• 시사주간지 정기구독

• 각종 여성문제 관련 자료 비치

• 우리들의 이야기 남기기 마련

• 각종 다양한 정보는 P.C통신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취·업정보뿐 아니라 문화, 예술 인물 사회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부하는 방에는

• 교양도서 비치

\\ 함께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가져다 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관리의 문제: 도서개방시간에 휴게실안에서만 볼수 있도록하고 도서대여를 마련하여 빌릴수 있도록 한다. 관리아줌마는 복지부장

장자는 방에는

'이불이 모자란다', '이불이 더럽다', '잘못이 모자라서 공부하는 방에서 자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불을 더 갖다 놓는다고 해도 일년내내 한두번 빨게 되는 지저분한 이불을 덮어야 한다. 관리아르바이트생을 두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관리아르바이트생은 관리를 책임지는 것이지 이불을 빨거나 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 잠자는 공간을 입식으로 바꾸어 좀더 많은 사람이 잘수 있게 한다.

\\ 이불은 좀더 갖다놓으면 된다.

\\ 이불을 깨끗이 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누구든 나서서 세탁하는 수 밖에...

☐ 도서관 휴게실

• 누울 공간이 필요합니다. -- 입식으로 고쳐서 간막이 안쪽을 누워 쉴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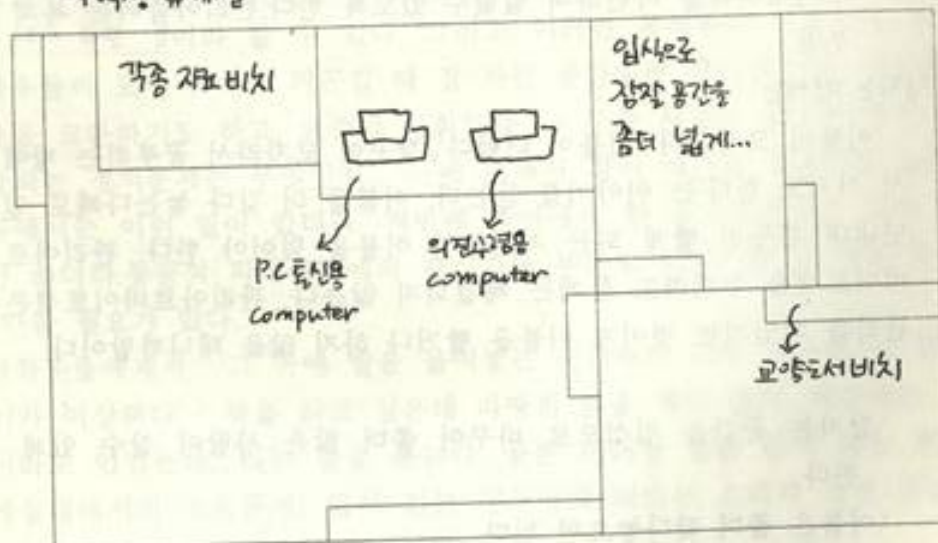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실은 이용하는 사람이 청소해야 한다. 요즘은 모임에서 학생회실을 청소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많다. 스스로 청소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생리대, 휴지 자판기관리

자판기판리는 관리가 93년 2학기때 학복위에서 총여학생회로 이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판기 관리는 전적으로 총여학생회 책임이며 관리아르바이트생을 둘 권한도 있다. 관리 아르바이트생을 두려면 한 사람이 모든 자판기를 관리하도록 해야만 한다. 수익금이 적기때문에 사실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을 줄수 있을까가 의문이다. 매일 품질에 자주 고장이 나는 것을 그때그때 체크하기위해서 관리 아르바이트생 둘 것이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이다. 그러나 그전에 화장지, 생리대자판기를 지속적을 늘이고 수익을 높임으로서 관리아르바이트생 둘더라도 실질적으로 월급을 줄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학생 휴게실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정수기 마련을 위해 5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래서 냉온수기로 4대가 들어오게 되었다. 설치위치 는 우선 학생회관, 도서관, 사회과학관 3곳이 정해진 상태 이다.

내년도 계속적으로 정수기를 들여올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건물마다 한대씩, 그리고 학생회관에는 2대의 정수기를 놓을 것이라고 시발추장님은 말씀하신다. 학생회관에 정수기를 2대 설치할 때 어떤 곳에 놓을 것인가로 말이 많다. 어디에 놓았을 때 가장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을때 <학생회관 로비, 그리고 3층> 아니면 <학생회관 지하, 그리고 3층>이 될 것이라 한다.

여학생휴게실에 정수기를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싼 정수기-아무리 싸도 80만원, 다달이 필터 값도 만만치 않다-를 총여학생회 예산으로 들여놓는 것이라면 모를까 몇대 안되는 정수기를 여학생 휴게실에 놓겠다는 생각은 제고해야 한다.

★ 올해 예산편성시 익생외관 외장실 보수, 난방보수, 문리외관 외장실 보수가 반영되어 곧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 한다.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쉬어가는 페이지

여학생휴게실이 왜 필요할까?

1. 여성의 생리적 구조로 파생되는 특수성

\ 실제 월경 기간에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여학우들이 많으며 그 여학우들이 쉬는 공간으로 이용된다. 이는 모성보호적 차원에서 고려되는 부분이다.

2. 여성을 바라보는 편견에서 오는 특수성

\ 자연스러운 자세나 태도를 소위 '여성답지 못하다'고 보는 잘못된 시각은 짧은 기간 동안 극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학우들이 스스로의 생활 모습을 개척해가는 훈련의 공간으로 휴게실의 기능이 요구된다.

3.익네에 존재하는 자치 공간이니 추기 공간이 여학우들을 포괄하기에 인계가 많다. 자연스럽게 여학우들이 모임으로써 집단주의를 실현시킬수 있는 자연적 토대가 필요이다.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취업비상

⇒일천의 힘으로 바늘 구멍이라도 내야합니다.

그저 막막하다. 3학년 여학우나 2학년 여학우들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할까? 그저 답답하고 뭐를 해야될지도 모르고, 글썄 뭐 그런 고민들 아닐까.

실제로 여학우들은 '취업'이란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벽을 느낄 것이다. 구체적으로 직업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영어 TOFEL이나 TOEIC을 막연히 준비하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얼마큼 자신들에게 열려진 사회문이 좁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굳이 그것을 열려하지 않고 워낙에 제약이 많다고 보니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맞춰 갑니다.

어떤 여학우는 말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간다. 3년동안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다. 대학생활이란 것이 이런 것이 아닌데..."라는 회의 섞인 말. 또 어떤 여학우는 말한다. "나는 비록 놀면서(?) 생활 했지만 언니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취직이 안되는 것을 보니까 시집이나 갈까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내가 왜 대학이라는 공간에 왔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도 힘들어 하는 말들. 이런 한숨섞인 고민들은 심지어 이

제 막 입학한 새내기 여학우에게서도 들게 된다.

우리의 대학현실이 사회의 산업예비군 훈련원처럼 전략해 버렸고 학문에서 주체를 세워 나간다는 것이 꿈같이 되어 버렸다. 올바른 대학생활이란 것이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하기위해 공부만 하는 생활은 아닐진데 그렇게 해도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이 인간적인 삶을 갈아먹는 것 같다. 특히 여학우들에게는 더하다.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해마다 취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그것을 풀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모두들 '여성들은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여성들의 참 모습을 잘 보지 못한 말인것 같다. 사회가 여성들이 개별적이 되도록 제약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만든다. 그러나 여성들의 참 모습은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했을때 누구보다 강인하고 함께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무엇보다도 과거 사회 여성단체와 여대협이 연대하여 취업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고용차별 투쟁을 벌였던 경험을 소중히 하고 여학우들의 참모습을 인식하여야 한다.

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 취업정보 유통

- 방법 : P.C통신 ⇒ 올해 예산편성시 기자재 구입비에 컴퓨터 구입 올랐것이다.
- 취업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문학, 사회, 예술, 영화, 인물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일석 여조의 효과가 있다.
- ⇒ 통화료는 저금통을 마련하여 여학우들이 조금씩 내는 돈으로 충당한다.

- 게시판 활용
- 소식지 활용

■ 졸업선배님과의 간담회

- 집중과 통일을 잘 시키는 간담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 상제로 과단위에서 졸업선배님들과의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존재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닐것이다. 날짜잡기 시간잡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얘기를 끌어나가는 지에 대해서까지, 솔직히 총여수준에서 이를 마련하고 과학우들을 참여토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과주체가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 날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잡으면 그 후부터의 내용적 고민은 총여와 함께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것인것 같다. 또한 단대 수준에서도 그 주체의 고민을 함께하고 정신적, 물질적 믿음을 줄 수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있는 총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단대, 과에서의 간담회 일정이 잡인다. → 이후 쪽 총여가 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더불어 약간의 지원금까지, 보다 자세한 취업정보를 주제와 함께 고민해서 올바른 대응 방식을 찾아가는 것

■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병률상의 문제나 취업에 있어서의 구조적 모순들, 총본이 깨 부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혼자힘으로 소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부분들도 존재한다. 가령 어느 여대생이 취업에 있어서 불평등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여대생만이 투쟁해 얻은 성과보다 그 여대생의 처지와 본질적으로 같은 여성들이 함께 했을 때의 성과가 훨씬 클 것이다.



사회여성들과의 연대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여성주의

올해 무수히 사용된 단어중에 여성주의를 기억하시나요? 10대 총여학생회에서 내건 3대 기조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여성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제기하더라도 대중적인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여성주의가 무엇인가를 짧은 글로 정리해보면

페미니즘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양되었지만 실제 삶속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주의란 구체적인 삶속에서 사회를 보는 여성의 시각, 올바른 시각을 만들어가기위해 일상의 것들을 한번쯤 비틀어보기부터 시작한다. 사회 곳곳에 있는 강요당한 시각을 탈피하고 중심이라고 생각되는것을 다시 돌려보자는 것으로 주변성의 힘으로 다름의 가능성을 깨달아 나가자는 움직임이다.

올해 많이 공유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음에도 상층 중심의 제기로 그치고만 아쉬움이 있다.

페미니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생활주변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과내에서는 음담패설때문에 말이 많고 여학우들 점수매기는 것등이 여전한데 말이다. 우리가 작은 것에서 실질적으로 고쳐나가는 노력이 없이는 어떤 이론도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이다. 성에 대한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성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줄 프로그램 마련

▣ 학교주변문화 물갈이 작업

실제 우리주변의 문화가 어떠한가를 조사하고 선정적인 사진이나 그림을 이른 액자선물과 바꾸는 것이다.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충분한 보람도 있을 것이다.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 여성의약강좌

여성이면서도 자신의 몸의 변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옷모양새에 따라 신체적인 질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여성은 특히 신체론 짝 죄는 옷을 많이 입게 되므로 여성만의 질병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월경주기 부터 임신주기, 냉증..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아니 이런것 까지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에서 나를 배운다.

기활을

화공93 옥영화

매춘여성들의 대부분은 가정불화로 가출한 여성과 인신매매당한 여성들이다. 그 여성들이 매춘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에 다다르는 곳은 기지촌이다. 매춘 여성들은 결혼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다. 미국인들은 그 여성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잘 보지 않고, 사람만 좋으면 결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곳에 쉽게 발을 들여 놓는다. 그러나 미군들 역시 국제 결혼을 한후, 미국으로 건너가면 그 여성을 다시 윤락가로 돈을 받고 팔아넘기기는 마찬가지다.

“다비타의 집”은 전우섭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놀이방과 재활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모여사는 곳이다. 오전에는 대부분의 혼혈아들과 빈민아이들을 받아들여 놀이방 교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내가

왜 유아교육과를 나오지 않았을까 고민할 정도로 아이들과 노는데도 시간마다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고, 아이들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 위해 힘을 들여야 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실때 기지촌 여성들을 만나기도 한다. 아이의 성격과 노는 얘기를 해드리면 무척이나 좋아하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혼혈인에 대한 인식이 안좋고, 아이들도 국민학교를 가지만 대부분 적응을 못하고 되돌아온다. 그래서 혼혈인 학교를 목사님께서는 주장하고 계신다. 아이들이 자신의 어머니의 직업을 알게되고, 피부색이 다를 줄 느끼고, 방황하게 된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나도록 우리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그 아이들도, 우리의 민족이기 때문이다.

저녁때는 클럽이나 미군부대를 방문하기도 하고, 성교육, 윤락의 사회적 고찰 등에 대해 요일별로 공부한다. 시대여학우들과 남학우들이 함께 공부 해야할 성교육에 대해 듣고, 그 얘기에서 기활학교가 제안되었다. 또 준비해있는 클럽중에 한 곳을 방문했는데 저질 음란 비디오가 상영되고 있었고, 분위기는 오히려 내가 외국인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 내 땅에서 미국인들은, 자기네들이 미국땅이라고 할만큼 자신에 차 있었다. 그런 비디오를 보고 술에 취해 우리 여성들에게 몸쓸 짓을 하는 미군들, 분노가 인다. 미군부대에는 수영장, 골프장, 편의점들, 이 모두 우리나라를 지키려(?) 온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하도 넓어 셔틀버스가 다니고 있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다녀와서

고, 가끔 탱크가 보이곤 한다. 하지만 마치 장식품들처럼 움직일 것 같지 않다. 미군의 대부분은 자원해서 온 사람들이기에 부랑자에, 문맹자들, 범죄자들, 천태만상이다. 그러니 온갖 퇴폐문화, 성범죄의 온상이라고 하지 않는가. 더 아이러니컬 한 것은 그 유지비를 우리의 국방비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 땅에서 있으면서 땅값도 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유지비를 대고 있다니...

기지촌 여성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매춘 성병과 건강을 담당하는 여성 센터를 설립할 것을, 매춘외에 다른 일을 할수 있도록하는 단체가 조직되어야 한다고 목사님은 말씀하신다. 실제로 여성

들 중이 자신의 처지를 깨부수고, 공장일과 아이스크림뚜껑에 스티커 붙이는 일등을 하고 계신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지배당하고 있는 모순속에서 남성 이데올로기, 순결이데올로기에 의해, 한국 남성에 의해서도 성적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계신 기지촌 여성들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 처지를 타파하고 재활의 방법을 찾도록 할 것인가.

먼저 이 땅에서 외세를 없애버리는 일, 우리 사회구조에서 다른 여자는 몰라도 내 여자만을 깨끗해야 한다는 순결이데올로기+전통적인 유교적 관습을 개선하는 것 등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루 아침에 없어질까? 그

렇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계약조건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만큼 그것을 제거해 버리는 데 힘든 여건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 전제하에서 그 제거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아무리 그것이 작을 지라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하나의 작은 부분이 '기활'을 통해 그 분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분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대의 여학우들 뿐만이 아니라 남학우(그 분들이 원하는 범위 안에서)까지 참여하는 연대활동, 또 그 전부터 있어왔던 복지부문의 작은 도움 가령 두레방앗 관매같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 1년에 2번? 너무 시간적 단절이 긴 것 아닐까요?

반학을 이룩한 기지촌 활동은 오랜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다 학기중에 2-3번 이틀 '기화'를 간다면 보다 질 높고 뜻깊은 '기화'가 되겠지요.

■ 꼭 '기화'를 통해야만 그분들과 함께하는 것일까요?

'기화'를 하게되면 어느 것보다도 우리사회에 대한 모순구조를 똑바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학우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라도 함께하고 싶으시면 '두레반짱'을 사 저속세요! 두레반짱이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동제나 시대여성한마당 기간에 적은 양이라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 만약 '기화'를 가게 되어도 그 사전지식이 없어서는 안되겠지요? 또 왜 '기지촌'이라는 것이 생겨났는지, 거기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얼마나 작용을 하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모른채 '기화'를 가게 된다면 쉽게 지치기도 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실수로 그 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화학교'가 필요합니다. 이 공간을 통해 활동에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며 또한 기지촌이 생긴 원인, 어떻게 계속 유지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여 산하 연사부에서 담당합니다. 그 안에서도 '기화'만을 준비하는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새민속혼례



재미보다 담긴 뜻이 더 좋아!!

결혼이란 독립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인간 본연의 삶을 보다 더 풍족하고 가치롭게 하기위해 만나, 함께 서로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을 화합 시켜내려는 새로운 삶의 탄생이다. 결혼식을 올리는 목적은 주위 사람들에게 두 삶의 이러한 결합을 알리고 이를 인정 받기 위한 것이며 두 사람이 이를 스스로 확인하고자 하는 의식이다. 그런데 지금의 결혼식장의 풍속도는 어떠한가?

복새통과도 같은 식장에서 밥한끼 얻어먹고 나오는 불청객같은 느낌을 아니 받을 수 없다. 신선한 결혼의 주체를 축하해 주고 그를 인정해 주는 결혼식으로부터 언제 부터인가 우리와 결혼당사자들은 소외되고 있었다. 그렇다고 전통혼례도 대안은 아니다. 신라시대 때 행해지던 결혼식은 전통혼례와는 달리 상당부분 남녀평등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가령 전통혼례는 결혼을 마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지만 신라의 결혼에서는 남자가 처가에서 10년간 생활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여성을 데려옴으로서 제공받는 노동력을 동등 보상에 준다는 의미가 강했다. 이풍습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교예법이 민중들에게 강요되자 기간이 3일로 짧아졌다. 서양식 결혼식은 아버지가 남편될 남자에게 아내를 인도해줌으로서 아버지가 가졌던 딸의 주권을 신랑에게 넘기는 삼중지도가 노골화 되었다. 또 신부의 흰드레스는 여성에게만 강요된 순결을 표상하는 것이다.

우리의 원래 결혼식은 종교적인 의식에서 내재되었는 엄숙하고 성스러우면서도 겸허한 면이 깃들여 있다고 한다. 조선조 이전은 형식적이고 근엄함을 강조하는 전통혼례와는 달리 잔치 분위기가 강했다. 이같은 풍습은 함을 받을 때 떠들썩한 놀이를 함께하는 우리의 독특한 문화에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정서가 잘 담겨 있으면서 거주장스럽지 않고 참석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주인되는 결혼식이 새민속혼례이다.

남녀를 동등하게 대우하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한다.

올해 대동제때 했던 전통혼례는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었던 것이 부담되었지만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알고 있고 있기때문에 연출비를 제하니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봉은사라는 데서 혼례식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대여해주기 때문이다.

결혼하지 않으신 지역주민을 알아보면서 생각보다 식을 올리지 못한 분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내년도 전통혼례를 계승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전통화시킬 것이다.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여학생회가 생긴 화공과를 찾아가서

여학생
모임
탐방

♣ 여학생 모임을 만들게 된 동기나 과정

▷ 직년에는 학년별로 자발적으로 모였다가 같이 밥먹고 이야기 하고 헤어지는 그런 여학생들만의 자리가 있었으나 올해 “한번은 모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주체도 튼튼히 세우고 뭔가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오갔었다. 여학생휴게실에 모여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다보니 여학생모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일치되고 주체는 2학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합의까지 나왔다. 2학년끼리 다시 모여서 주체도 뽑고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고 나름의 결의도 했었다. 여학생 모임에서 걸으로 표출된것은 없었다.

♣ 여학생모임에서 당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 1학기때 활동이 적었었다. 주체적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할 것을 참 많은데 추진하지 못했다. 2학기 들어서 1,2,3,4학년 모임을 강화하는 체계를 고민하면서 장을 뽑아서 학년별로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학생모임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까를 고민하다 여학생들과 이야기들을 했는데 모두들 대학생활동을 잘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학, 탁아활동, 장애자 봉사활동등 여학생 모임에서 담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해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졸업선배님들까지 들어가는 주소록을 만들자”, “졸업선배님들과의 간담회를 가져보자”는 이야기도 나왔고 아직 추진하진 못했지만 여학생들이 모두들 생각이 건전하고 비슷하며 어떤 일이든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종적으로 기지촌활동을 해보자는 결론을 내렸는데 기지촌 활동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다. 탁아활동 하듯 기활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조사도 않고 이것 저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2학기 기활을 몇명이 다녀왔으며 1, 2학년은 참여할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였고, 3학년은 관심갖고 도와주겠다고 했다.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 **아면서 그만두는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 여학생들이 모여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학생부로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여학생부는 학생회 체계에 포함되어 여학생들의 이해를 대변할 충분한 틀이 아닌것 같아서 여학생회를 고민해보았다. 기반을 확실히 해 놓고 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여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하반기 총회때 올려서 인준받을 것을 합의했다.

♣ **학생회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 이제 화공과 여학생도 30명이 넘는다. 그래서 과 체육대회때 여학생들만의 종목을 만들고 시간을 가지려 했는데 과 체육대회 준비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해서 이루지 못했다. 여학우를 위한 공간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배려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 **사람대 여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 여학우들이 참여하고 해나가야 할 것도 예전에 남학생들이 모여서 해왔다. 모임이 생기면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모으려는 생각들이 생겼고 힘을 모아서 잘해보자는 분위기를 띄움으로써 진농제때 발아구는 8강까지 족구는 4강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우리가 해야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

우리의 현실이 여학우 한명이 잘못하면 '여학생은 어쩔수 없어'라고 씨잡아 비판 받는다. 이런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면도 있으면서 불만은 많은데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가 주인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인됨을 보여야 한다.

♣ **사람대 남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 호탕하고 인정받고 활동적이고... 이런것이 자신의 인격이라고 생각하면서 술자리 EDPS나 여학생 점수매기는 것은 인격에 포함된다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고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모든 것의 자신의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여학우들을 대상화하는 일은 절대 하지 못할 것이다.

♣ **총여학생회에 바라는 점**

▷ 책도 많은데 빌릴 수 있는 것인지 물렸다. 자료나 문건을 형식적으로 공개하고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학생회를 바라보며

외공 94 임중성

막상, 이런 글의 제안을 받고나서 무엇을 써야 할 지 굉장히 막연했다. 하지만 문득 우리과의 여학생 모임을 생각했다.

우리과 여학우 모임하면 생각나는 것이 수다떠는 것, 같이 어울려서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으로 보였다. 이런 모임보다 여학생들과 같이 얘기하다 보면 어떤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는 같이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은 잠시 잠깐 어떤 약간의 분위기에 묻혀져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총여학생회가 이런 문제 의식을 풀어주는 단체인지 이름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총여학생회는 여학생 쉽터만 제공해 주는 그런 곳으로 비쳐졌다.

예를 들어 음담패설을 얘기하면 서로 웃다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보고 '종으면서 왜 그래'라는 식으로 끝나버린다. 아니면 길거리에서 예쁜 여학생을 보면 '우와 제 예쁘다'라는 말로 지나치고 이런 상황속에서 여학생들은 남녀관계의 불평등을 잠시잠깐 얘기할 뿐 큰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일 진짜 여학생을 위한 여학생회를 꾸려 나가려면 이런 문제의식을 함께 고민하고 따로 떨어진 총여가 아닌 함께 얘기하고 남학생들과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는 여학생회, 여학생의 모습이 되길 바란다.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총여학생회는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총여학생회만이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러한 고민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의 총여학생회 그리고 시립대 여학생 운동에 대한 평가를 아니할 수 없다.

혹자는 시립대에 여학생운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

여학생운동, 총여학생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총여학생회만이 담아낼 수 있는 내용으로 알 수 있으며 여학우들의 존재에 기반한, 그리고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모아내어 여학우와 함께 풀어나가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하에 고민해 들어가야 한다.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문제 그리고 이시대의 모순이 겹겹이 중첩되어 있는 기지촌 활동이다. 사람들의 요구가 변함에 따라 학우들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담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고민되고 있으며, 이것은 총여학생회 뿐 아니라 학생회 전반의 고민이기도 하다.

선거를 3년 치루면서 우리는 많은 벽에 부딪혔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라는 말들

사실 구체적이지 못함이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구체적인 것을 바라는 학우들의 요구는 각 선본들의 공약의 남발을 낳는다. 사실 어느 학교도 우리학교 같이 공약이 많은 곳이 없다. 간단히 올해의 모습을 보자 작년의 공약들을 지켜내느라 총여 일꾼들은 열심이 뛰어다녔다. 그러나 공약이 많아서, 구체적이어서 학우들의 관심이, 참여도가 높아진 것은 절대 아니었다. 단편적으로 올해 여성학교에서 10명도 안되는 학우들이 강연회를 들었으며 몇몇과에 한정된 시대여성한마당을 치워내었다. 그리고 여전히 총여학생회는 '동떨어져 있어요',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가? 총여간부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과마다 여부장들을 만날 시간도 없고 과 공부도 소홀히 해야만 하는 총여학생회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회의도 든다. 너무나 많은 사업들...

총여학생회가 사업소로 전락해버릴 것 같은 두려움도 든다.

지금은 영어의 몸이지만 김종백 총학생회장님을 기억하실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것이다. 그분이 93년 문리대 학생회장이셨을때 사실상 사업들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모든 문리대 학우들이 잘 했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던 것은 문리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그 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마다 제기되는 문제, 가까운 총여학생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 집중식 사업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자신한다. 그리고 과로, 단대로, 여학우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과 여학생회나 여학생부 모임이 있을 때 총여학생회 간부들이 그 안에 있어야 하며, 시립대 곳곳에서 여학우들과 이야기해보는, 1000명의 여학우들을 모두 만나보겠다는 각오로, 적어도 500명의 여학우들 이름을 알고 있는 총여학생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만이 여학우들의 삶에 융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거듭 당부한다. 일만하는 총여학생회가 아닌 한가지라도 본때있게 해나가고 여학우들과 진실한 만남을 만들어 가는 총여학생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저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인데...

음악학과 '93 김선희

몇년전 음악과 건물에 검은 천을 두르고 단식투쟁을 하던 선배님들의 모습을 그려 본다. 그때만큼 음악과 학우들의 힘이 모아졌을 때도 없으리라.

여러가지 활동에 가장 부진한 과가 우리과가 아닐까한다.

그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전공자체가 개인 연습이고 레슨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럿이 기보다는 자신의 시간이 중요시되고 과 활동, 더군다나 학내의 활동에는 자연히 등한시 되었던 것 같다. 우리의 졸업후 진로는 유학, 대학원, 단체의 합창단 오케스트라, 개인레슨등이 있다.

둘째는 시대인들라의 이질감이다. 흔히 말하는 예대에서도 음악과는 시대의 압구정이 아닌가? 알고보면 우리과 사람들도 다른 이들과처럼 힘들게 학교돈어와 학비 때문에 고민하고 포장마차에서 소주한잔하는 그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셋째는 학생회의 문제일 것이다. 음악학과 학생회는 그렇다. 학우들이 일구어낸 학생회가 아닌 과에서 만든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학우들의 목소리로 과의 일을 일구어내지 못하고 몇명의 임원들이 음악회를 준비하는 이벤트사업을 하기애 정신이 없다. 이벤트사업을 하는 학생회가 아닌 학우들을 위한 학생회로 과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와 벌어진 학우들을 시대인들과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자세로 이끄는 학생회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시대의 모든것이 자연스럽고 절실하게 다가와 진정한 시립대인으로 설 수 있으리라.

실제 음악학과 학생회는 월평균 3~4번의 연주회 준비로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연주회 준비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닌 만큼 학생회일은 음악학과 학우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전통제전, 문리대 제전을 치루면서 음악학과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리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새삼스레 하면서 실제 매개고리를 만들지 못했다. 올 음악학과 정기연주회때 플랭카드를 부탁에 의해 써드렸는데 너무나 고마워하시는 학생회장을 보면서 음악학과 학우들에게 다가가는 길은 어찌면 작은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때면 무엇을 헤드리겠습니까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플랭카드라도 한장 써드리고, 연주회에 참석하고, 술한잔 계기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M'이 몰고 온 낙태파문

—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

드라마 'M'이 압도적인 시청률
을 기록하면서 방영되었을 때
많은 여성들이 불면증과 두려움을 호
소했다. 그 드라마에서 낙태를 한 여
성은 혼전 성관계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아기를 낙태
시켰다. 어쩌면 지금도 다분히 일어
나고 있는 일이다. 우리는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한 그 여성을 비난할 수
도 있고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던 그
남성을 비난할 수도 있다. 어찌되었
든 봉건사회에서 현재의 자본주의 사
회로 발전하면서 계속 논란이 되어왔
던 혼전 성관계에 대한 부분과 피임
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
는가하는 일반적인 문제를 낙태라는
결론과 함께 고민하게 되는 것은 당
연한 일일 것이다.

지난 9월 5일 ~ 13일 까지 이집트 카
이로에서 열린 국제인구개발회의
(ICPD.세계인구회의)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 경제개발, 환경보호를 통해

인구를 억제하겠다는 행동계획을 채
택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쟁점사안은 낙태 허용 및 피
임, 성교육개방등 생식, 섹스와 관련
한 여성의 권리를 명시한 대목이었
다. 로마 교황청등 카톨릭과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들이 이에 극도로 반발
하고 나서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
었다. 이들은 위의 사안들이 채택되
었을 경우 낙태와 동성애, 혼외 정사
등 부도덕과 가정파괴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이러한 사안
을 채택하는 것은 서구 문화 제국주
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소리를 높
였다. 결국 낙태 허용에 대해서는 낙
태가 가족계획의 한 형태로 권장되어
서는 안된다고 명시하면서 낙태 허용
을 행동계획으로 채택하는 걸로 결론
이 지어졌다. (한겨레 신문 9월 5일
자, 14일자 기사 참조)

우리사회에서는 이미 낙태, 출산등의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문
제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세계 최고

제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세계 최고
의 유아 수출국이 우리나라이고 미혼
모들을 위한 사회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단체들의 필요성이 절실해
지고 있다. 낙태라는 문제는 그것 자
체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사회적 현상속에서 낙
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위에서
언급한 드라마나 인구회의에서의 잘
못된 편향은 바로 이러한 총체적인
시작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낙
태 자체에
대한 논란
으로 치우
쳐져서 결
국엔 결론
없는 도덕
성 여부의

논란으로 치달아버린 점이다. 누구나
낙태 자체가 옳지 못한 행위임에는
동의할 것이다. 그것은 낙태라는 행
위 자체가 가져오는 인간 존엄성의
파괴 및 모자 보건의 파괴 뿐만 아니
라 그것이 곧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
이다. 문제는 낙태자체를 그 순간의
행위를 부각시키면서 바라보느냐, 낙
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느냐에
따라 '절대 안된다. 상황에 따라 다르
다. 여성의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다'
등의 입장이 나누어지게 된다. 가슴

아픈 고민이기도 한 이 문제는 위의
세가지 입장 중 어느 하나가 맞다라
는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
사랑에 대한 총체적 시각으로 접근하
여 근본적인 대안이 무엇일가를 고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자세요, 관점
일 것이다.

사랑은 남, 녀 둘이 만들어 내는 것
이다. 과정에서 아이들의 출산의 문
제 역시 둘이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
이며,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부와 사
회전체의 책임 역시 크다고 할 수 있
다.



우리사회에
는 엄청난
게 왜곡된
성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출산
에 대한 책
임을 회피

하게 만드는 문화속에서 성과 사랑이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이다. 계급사회
가 발생하면서 기득권이 자신의 권력
을 유지하는 도구로 남성에게 그들의
성이 공격적이고 폭발적이라는 이데
올로기를 심어주면서 여성을 이용해
왔고 오늘날에는 자본주의라는 구조
속에서 그것이 엄청나게 대규모적인
매매춘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매매춘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어느 누
가 피임을 고민하고 실행하겠는가.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여성들에게 낙

태는 죄악이니 책임지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가
 사회적 문제인 매매춘이나 급증하는 성폭력의 문제 등은 낙태를 정당화하는 특수 조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문제 말고도 우리들에게 뿌리내려 있는 왜곡된 성인식인 것이다. 성교육 부재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결국엔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을 힘이, 올바른 성문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들은 그러한 의지가 없었고 현 정권 역시도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이 형식적으로 그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현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낙태를 금지하는 법제정만이 인간 존엄이나 문란한 성문화를 금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성지식의 무지에서 오는 임신 (일반적으로 피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인식, 그러나 닫혀있는 성교육속에서 여성들은 피임이나 기타 성지식이 무지한 것이 현실이다.- 여성이 피임을 할 경우 여성의 신체에는 막대한 손상이 오게 된다.), 향락산업의 번창으로 더더욱 방치되는 성폭력에 의한 피해, 매매춘 여성들의 임신,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낙태등은 낙태라는 결론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미혼모, 유아수출, 버려진 아이들 등의 또다른 사회문제를 만들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낙태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낙태를 하게 만드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먼저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로 낙태를 금지시키려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은 예외조항이 필요하다. 무조건적 금지는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일 뿐이다.



미 여대생 20% 광고모델 '콤플렉스'

7월 미국의 심리학전문지 <이상심리> 11월호는 미국 예리조나 주립대 에릭 스타이스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20세의 여대생 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광고모델같은 몸매를 가꾸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끼고 있으며 응답자의 20%가 여성잡지의 다이어트광고 때문에 식욕장애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